

조이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 나온 두 꽃

손 승 희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 5장에서 꽃이 두 번 나왔다고 특별할 것은 없어 보인다. 한 번은 여성이 보낸 꽃으로, 다른 한 번은 남성이 보는 꽃으로 언급되어 있다. 작품의 영어 원문에서 부정관사를 사용한 “하나의 꽃”(a flower)에 이어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꽃”(the flower)의 연결을 보이지 않으니 두 개가 같은 꽃은 아니다. 작가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두 연인을 두고, 각각의 표현에 꽃이라는 같은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다. 얼핏 보면, 그 점만으로는 작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사방에 이름 가진 꽃식물이 나오는 이 장에서 이름 없는 꽃으로 파묻히기 쉬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두 개의 꽃은 들여다볼수록 예사롭지 않다. 연서에 동봉된 마사(Martha)의 꽃과 목욕탕에 뜬 블룸(Bloom)의 꽃은 이야기 전개와 두 축으로서, 『율리시스』 5장의 서사적 진행을 이끈다. 오히려 두 번 다 그저 하나의 꽃으로만 일반화된 점이, 이 장에 자리 잡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여러 꽃 이름을 배경으로 상대적인 주목을 받을 여지가 있다. 편지 전문이 텍스트에 공개된 마사의 적극적인 연애 욕망과 그녀와 대면할 생각이 없이 가명 헨리 플라워(Henry Flower)로서 편지를 주고받는 블룸의 소극적인 반응 사이에 꽃의 다리를 놓아보고 싶은 독자의 욕망이 생겨난다. 두 꽃의 관계 맺기에 도전하는 이 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꽃이 두 번 나오면서 각각 “하나의 꽃”으로 표현되듯이, 각자 별도의 욕망에 갇혀 있는 연인들 사이에서 별다른 합일점을 찾기 어렵다. 마사와 블룸은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관계이긴 한데, 만나자고 강력히 요구하는 마사에 비해서, 가명으로 서신을 교환하고 혼자서 자위를 상상하는 블룸은 적극적인 교제를 피하고 있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의욕이 없는 연인 사이에 선블리 꽃을 끼워서 만남을 주선하는 비현실적인 독자의 욕망으로 『율리시스』를 들여다보니 꽃의 언급이 인물의 이름에도 반복된 점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블룸은 헝가리어로 꽃을 뜻하는 비러그(Virag)의 가계에서 영어식으로 개명된 성이다(Gilbert 156). 『율리시스』 5장에서 처음 언급되는 헨리 플라워라는 가명에도 여전히 꽃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플라워”가 성으로 포함되어 있다. 마사와 ‘블룸’의 가명 헨리 ‘플라워’, ‘플라워’와 ‘블룸’, 그리고 ‘블룸’과 조이스 사이 꽃의 매개 관계가 이름으로 상징된다.

『율리시스』에서 꽃이 언급된 곳은 5장 말고도 여러 군데이다. “꽃”을 검색이라도 하듯이 찾으려 들면, 바로 다음 6장에서도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장례식 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블룸의 시각을 만날 수 있다(Semon 40). 작품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연애 시절을 회상하는 여주인공인 몰리(Molly)의 의식의 흐름을 타고 안달루시아 소녀로서 붉은 장미꽃의 연결이라든지 호우스(Howth) 언덕의 만개한 만병초 꽃 배경으로 “야산에 핀 꽃”(the flower of mountain, U 18.1576)의 호칭 등이 어색함 없이 쏟아져 나온다. 『율리시스』 전체로 보면 키스 장면을 포함해서 절정을 이루는 주인공 남녀의 사랑 행위에 동반되는 18장의 강렬함에 비할까 싶지만, 사실 『율리시스』 5장은 꽃의 종류와 출현 빈도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

『율리시스』 1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작품 전체에 장별 번호가 붙어있지 않다 보니, 작품의 밑그림으로 간주된 『오디세이』(*Odyssey*)에서의 모험 순서를 따라 숫자 대신 익숙하게 사용되는 장 제목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오디세이』와 『율리시스』의 작품 사이의 상응 구조에 맞춰 붙여진 제목에 따르면, 『율리시스』 5장의 이름은 「로터스 먹는 종족」(“Lotus-Eaters”)이다. 꽃식물이 들어간 장 이름부터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듯, 『율리시스』 5장은 꽃의 종류와 이미지가 다양하고 빈번해서 『율리시스』 비평가들 사이에 꽃 관련 논의가 빠지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그 중에 일반화된 꽃의 표현을 두고, 필자의 관심사인 두 꽃의 관계를 직접 다룬 비평이 많지는 않더라도, 하나는 마사가 편지에 동봉한 실제 꽃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불륨의 자위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두 꽃의 연관성과 의미를 찾아볼 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꽃”으로 텍스트에 들어온 두 대목이 불륨의 의식의 흐름을 타고 진행되는 『율리시스』 5장의 서사에서 주요한 비중을 지닌 만큼, 왜 어떻게 등장했는지 관련 논의를 찾아 『율리시스』 5장의 서사적 흐름 속에 출현한 두 꽃의 비중을 복원해 보려 한다.

조이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의 다양한 꽃의 쓰임새에 중점을 두고 비평적 논의를 찾아보면, 마사의 편지에 꽃힌 한 떨기 꽃과 불륨의 신체 한 부분을 수면에 띄운 꽃송이에 비유한 연결고리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평에서 겹쳐진 시각에서 배경 지식을 얻고 갈라진 시각에서 안목을 넓히면서 그 축적된 의견을 통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적용 방법을 배울 수 있겠다. 그렇게 개인적 독서 반응에서 비롯되어 한참 만에, ‘꽃 편지 받고 꽃을 피우는’ 꽃 이름에서 꽃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글로 분석하려 한다. 작품을 일구는 손길 하나 지나칠 것이 없는 조이스의 서사 기법을 따라 두 꽃의 출현 방식, 사용 취지, 등장 위치를 탐색하면서, 『율리시스』 5장의 두 꽃 마주보기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II

이제 두 꽃의 연계성을 찾아, 대개의 『율리시스』 비평이 그렇듯이 『오디세이』의 상응 구조부터 점검해 보기로 한다. 조이스 비평가들 사이에 호머의 『오디세이』를 밑그림으로 익숙하게 언급되는 『율리시스』 5장의 이름은 「로터스 먹는 종족」인 만큼, 제목과 등장인물에서 꽃의 관련성을 기대할 만하다. 그런데 「로터스」가 포함된 장 제목이 유래된 호머의 “로터스 먹는 종족” 대목을 보면, 『오디세이』 9장에 들어 있다(*Odyssey* 9.82-104). 우선, 장별 제목과 순서가 일대일 대응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흔히 기계적인 상응 구도가 갖는 한계성을 감안해도, 「로터스 먹는 종족」장은, 『율리시스』에만 해당되고 『오디세이』의 한 장을 오롯이 차지하지 않고 있다. 조이스 작품으로 보면 「키클롭스」(“Cyclops”) 장에 해당되는 외눈박이 거인의 이야기가 호머의 작품에서는 “로터스 먹는 종족” 대목의 바로 뒤에 이어진다. 그리고 이를테면,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 5장보다 뒤에 있지만, 13장 「나우시카」(“Nausicaa”) 장은 호머의 『오디세이』에서는 로터스 먹는 종족이 사는 섬에 표류되기 이전의 『오디세이』 4장의 모험 이야기로 구술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율리시스』의 주인공 인물의 이동 경로와 순서가 『오디세이』와 부합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율리시스』 5장에서 그 이전에 “나우시카” 모험을 이미 경험한 블룸이 「키클롭스」 장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에서 연계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나우시카」 장의 거티(Gerty)를 통해 블룸에게 성행위가 가능함이(Reyes-Reyes 30), 『율리시스』 5장 이전에 이미 입증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아들 루디(Rudy)를 생후 11일 만에 잃고 부부 관계를 피해 온 지 10년 8개월이 넘는 블룸에게 연애 감성은 남아 있음이 “침대 친구”(bed-pal)보다 “편지 친구”(penpal)로 좋은(Ellmann 45) 마사와의 관계를 예시로 뒷받침된다. 아울러, 블룸의 머릿속에 맴도는 “홀러내털라”(To keep it up, *U* 5.288)라는 노래 가사 의미의 다의성 — 핀으로 속옷을 고정하지 않아서 속옷이 흘러내

릴까 걱정하는 노래 일부로서만이 아니라, 가사에서 떼어 낸 한 줄 표현으로서 남성의 성적 흥분을 암시하는 다른 의미도 있음 — 역시 뒷받침된다. 그리고 거티를 보면서 사정에 이르게 된 블룸이 성 기능 면에서 정상이라는 입증 자료 역할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조이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을 『오디세이』 9장에 비취 볼 때, 『율리시스』 5장 후반부에 밴텀 라이언스(Bantom Lyans)를 만나면서 경마에 귀땀을 했다고 받은 오해로 인해서 블룸이 혼자만 마권으로 이익을 보고 시침 때는 인색한 인간으로 치부되는 곤란한 상황도 「키클롭스」 장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새롭게 발견된다.

이렇게 비평가들이 『율리시스』 전반적인 논의에 동원하곤 했던 『오디세이』 방식의 전개 구조를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두 “로터스 먹는 종족” 이야기의 공통 요소인 ‘로터스’로 논의를 좁혀 보기로 한다. 호머의 서사시에서 로터스는 꽃이 아니라 무기로서, 망우수(忘憂樹)로 알려진 연꽃 식물의 열매를 가리키며, 먹고 마약처럼 취해서 현실의 근심 걱정을 잊는 마취 효과로 사용된다. 그에 비해, 조이스 소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서 로터스는 연꽃의 일종인 수련(waterlilies, U 5.35)으로 한 번 언급되고, 커다란 연잎 이미지로 나른함의 행복한 분위기를 담당한다. 『율리시스』 5장의 로터스는, 전의를 상실하고 귀로를 망각한 채 표류된 섬에 영원히 머물게 함으로써 오디세우스 장군을 치명적으로 무력하게 만들려는 유혹과는 다른 취지로 사용된다. 현대판 오디세우스에 해당되는 블룸에게는 로터스가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6월의 더운 날씨를 배경으로 나른한 꽃 무대를 이룬다. 두 작품에서 대조적인 로터스의 역할이 갖는 공통 기반은 인간을 그 영향력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로터스, 즉 『오디세이』의 망우수 열매와 『율리시스』의 연꽃-연잎 사이에서 공통점 찾기는 식물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를 상정하게 한다. 그리고 두 경우에 다 인간과 식물이 연계되어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로터스’가 ‘종족’의 음식으로 직접 연결된 호머의 “로터스 먹는 종족”은 물론이고, “나태의 꽃”으로 언급되는 조이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서도 “커

다란 이파리들”과 “빈둥거리는 실론(Ceylon)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극동. 멋진 곳일 거야. 세계의 정원이라, 그 위에 타고 유유히 떠다닐 만한 커다란 이파리들에, 선인장에, 꽃 핀 벌판에, 소위 뱀 같은 덩굴식물에. 정말 그럴까. 유유히悠悠閑閑이라, 종일토록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햇볕 속에 빈둥거리는 실론 사람들. 열두 달 중 여섯 달을 잔다지. 너무 더워 말다툼도 귀찮아. 기후의 영향. 나른함. 나태의 꽃.¹⁾ (U 5.29-32)

위의 인용 부분에 보이듯이 극동 지방을 향해 상상의 나래를 펴는 블룸의 의식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에 휩싸여 흘러가고 있다. 이국적인 정원의 상상은 햇볕 속에 기후의 영향을 받는 꽃과 잎에 선인장과 덩굴 식물의 언급과 함께 손과 잠, 그리고 말다툼의 주체인 사람이 나오고, 그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유유히 떠다니고 유유히한 분위기를 타면서 나태의 꽃으로 맺어지고 있다.

『울리시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장에서 식물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또 그래서 동물의 등장이 돋보이기도 한다. 블룸이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나온 말의 묘사는 블룸이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관찰을 통해 인간적이고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 말은, 머코이(M'Coy)와의 대화 중 디그넘(Dignam)의 장례식을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의 생전 좋아하던 극과 함께 자살로 마감된 임종 장면을 피했던 자신을 돌아볼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다. 관찰 대상은 주머니에 코를 박은 거세한 말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른하고 안일한 시간의 흐름에 묻힌다. 블룸의 성생활 상태와 동물로서 말의 남성성이 대조를 이루지만, 나름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관찰에 안주하는 블룸의 인간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따라서 블룸에게도 집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떠돌게 하면서, 무력하고

1) 제임스 조이스 저. 이종일 역. 『울리시스』. 문학동네 2022 출판 예정인 원고에서 번역 참조.

도피적인 태도를 주입하는 마취 효과로 동일시하기에는 집 떠난 블룸의 모험이 자의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길버트(Gilbert)의 지적대로 블룸은 모험의 주인공으로서 “낭만적인 목표”(a romantic object)를 위해 집을 나온 것이다(5). 그것은 비밀 연애 상대로부터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하는 블룸의 발걸음을 의미한다. 『율리시스』 5장의 주인공은 영웅이 집을 떠나 모험 길에 오르는 전통적인 영웅담의 구조를 바탕으로 갖고 있다. 블룸이 우체국을 그 첫 행선지로 삼고 마지막 목욕탕 장면에 이르기까지 더블린 남부 거리를 다니는 시간이 『율리시스』 5장의 추동력이 된다. 영웅의 귀환도 예정되어 있는 서사 틀이기에 시간이 지나서 『율리시스』 여러 장이 지난 후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블룸의 배회는 목적 없는 방랑자의 산책으로만 보기에, 귀환을 막는 유혹을 물리치는 도전의 연속으로 보기에 부합되지 않는, 일상의 굳건한 측면이 자리 잡고 있다. 『율리시스』 6장 곧 이번 장 다음의 「하데스」(“Hades”) 장에서 장례식에 가는 일정이 잡혀있다. 그리고 5장 거의 끝 시간에 아내 몰리에게 가져다줄 로션을 사려고 스위니(Sweny) 상점에 들르는데, 이는 그의 귀가가 전제되어 있다는 예로 보인다.

리처드 엘만(Richard Ellmann)은 『율리시스』의 등장인물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구획 지어 논의하고 있는데, 같은 책에 길버트와 리나띠(Linati)의 분석 도표가 비교 수록되어 있다(58-59, 186). 이런 분석 틀에 따르면, 식물이 많이 나오는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은 꽃의 범위에서 확장되어 인식되고 있고, 신체 기관 중 피부가 식물의 꽃잎에 대응된다. 『율리시스』 장별 주요 기법은 물론이고 같은 날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율리시스』 5장의 시간적 배경을 기점으로 『율리시스』 2장을 블룸 대비 『율리시스』의 다른 주인공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와의 동 시간대 사건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스티븐의 『율리시스』 2장이 끝의 “동전”(coin)으로 대표되는 돈의 문제라면, 블룸의 『율리시스』 5장 끝의 “하나의 꽃”도 위치상 핵심 단어로서 대표성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엘만은 “브라운과 놀

런”(Browne and Nolan)이라는 소제목 아래 『율리시스』 4-6장을 한 단위로 보고 5장을 블룸에게 앞서 일어난 4장의 사건과 비교 대조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내장과 피부, 공간과 시간, 고체와 액체, 활동과 휴식을 대비적으로 분석하면서 『율리시스』 5장의 구조를 피부, 시간, 액체, 휴식 등으로 통찰력 있게 짚어 낸다.

III

『율리시스』 5장은 당연하게도 『율리시스』의 4장과 6장을 잇는 경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율리시스』 4장에서 소개된 가족을 뒤로 하고 블룸이 집을 나와서 더블린의 웨스틀랜드(Westland) 로에 접어드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시끄러운 아침 부둣가 소음에서 발길을 돌려“ ”벨파스트와 오리엔탈 차 회사“(the Belfast and Oriental Tea Company)를 향하면서 차 재배에 좋은 날씨를 떠올리는 블룸은 실론의 차부터 시작해 생각에 침잠하게 된다(U 5.3-4).

그런데, 블룸에게도 『율리시스』 5장의 서사에도 우체국 가는 길목보다 더 중요한 대목은 편지를 찾는 일이다. 블룸에게 몰래 봐야 하는 편지는 따라서 봉투에 든 편지와 꽃의 정체가 밝혀지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블룸이 편지에 동봉된 물체를 확인하는 도중에 만난 머코이와의 대화는 그런 이유로 주머니에서 편지를 만지작거리는 블룸의 행동에 방해가 되는 일로 여겨진다. 결국 그것이 편으로 꽃힌 꽃임을 알기까지 독자의 추리를 유도하듯이 제시되어 있다.

그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고 집게손가락이 봉투 뚜껑 밑을 더듬더듬 찾다가 획 뜯어 열었다. 여자들은 주의 깊게 마련이라는데, 그렇지도 않군. 그의 손가락은 편지를, 편지를 끄집어내고 봉투를 주머니 속에서 구겼다. 뭐가 편으로 꽃혀 있는데, 사진이겠지. 머리카락일까? 아냐. 머코이다. 얼른 따돌리자. 주의가 산만해질라. 이럴 때 누가 옆에 있는

건 싫다.

—어이, 블룸. 어디 가나?

—어이, 머코이. 별군데 안 가.

—재미가 어때?

—좋아. 자넨?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머코이가 말했다.

검은 넥타이와 옷이 눈에 띄자 그는 살짝 예를 갖추어 물었다.

—혹시 ... 별일 없지? 보니까 자네...

—아, 아냐, 블룸 씨가 말했다. 왜, 불쌍한 디그넴 있잖아. 장례식이 오
늘이거든.

—오오라, 딱한 친구. 오늘이군. 몇 시지?

사진은 아니다. 배지일지도. (U 5.79-93 필자 밑줄)

결국 꽃으로 밝혀질 때, 『율리시스』 5장의 두 개의 꽃 중 첫 번째 꽃이
별 수식 없이 등장한다. 아니 정확하게는 “노란 꽃 한 송이”(a yellow
flower)를 가리키는 표현이 꽃의 종류도 언급 없이 나온다.

꽃. 내 생각에 이건. 꽃잎들이 납작 눌린 노란 꽃 한 송이. 그렇다면 화
나지 않았나? 뭐라고 썼을까? (U 5.239-40)

『율리시스』 11장에서 블룸은 답장을 썼는지 기억을 더듬으며 데이지
꽃이었는지 자문하며 이 꽃을 다시 떠올린다(U 11.297-98). 『율리시스』 10
장에서 보이런(Boylan)이 몰리를 방문할 때 가져갈 선물과 함께 준비한 꽃
은 “빨강 카네이션”(a red carnation, U 10.328)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되는데, 블룸에게도 독자에게도 데이지였나 모를 노란 꽃보다 확실한
기억과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다.

『율리시스』 5장에는 블룸이 골목 구석으로 가서 남몰래 봐야 할 편지
내용이 전문 수록되어 독자에게 공개된다. 편지 답장에 동봉된 꽃의 종류
보다 블룸에게 당장 궁금한 건 편지 내용일 것이다.

그리운 헨리

지난 번 편지 고맙게 잘 받았어요. 먼젓번 제 편지가 마음에 안 들었더니 섭섭해요. 우표는 왜 동봉하셨어요? 저 선생님한테 엄청 화나있어요. 그 별로 혼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쪽을 못된 남자라고 부른 건 그 다른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뭔지 좀 알려주실래요? 이 불쌍하고 어린 못된 남자 같으니, 집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게 자기를 도와줄 방도가 있으면 좋으려면. 불쌍한 저를 어찌 생각하는지 말해줘요. 전 종종 자기가 가진 아름다운 이름을 생각한답니다. 그리운 헨리, 우리 언제 만나요?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남자한테 이렇게 까지 끌리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기분이 정말 안 좋은데 그건. 제발 편지 좀 길게 써서 얘기를 더 많이 해줘요. 잊지 말아요, 말 안 들으면 자기를 혼내줄 터예요. 이 못된 남자, 편지 안 썼으면 어떻게 될지 이제 알겠죠. 아, 자기를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사랑하는 헨리, 제 청을 거절했다간 제 인내심이 폭발할 줄 아세요. 그때 다 털어놓을게요. 이만 줄여요, 이 못된 내 사랑.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애태우는 제게 보내는 편지는 지급으로 하세요.

마사 보냄

추신. 선생님 부인은 무슨 화장품을 쓰는지 알려줘요. 알고 싶어요.

x x x x (U 5.241-59)

편지에는 『율리시스』 전체에서 다뤄질 만한 철학적 논의를 부르는 개념인, 이름과 실제의 범주가 타이피스트 마사의 실수처럼 던져진다. 여기 편지의 문맥상 “그 다른 세계”에서 ‘세계’(world)로 표기된 말은 마사가 ‘단어’(word)로 표기하려던 것인데 잘못해서 알파벳 ‘1’을 집어넣은 결과로 보인다.²⁾ 작가 조이스에게 작품 속 인물의 실수나 오해는 서사를 끌어가

2) 제임스 조이스 저. 이종일 역. 『율리시스』. 문학동네 2022 출판 예정인 원고에서 역자 주 인용.

는 흐름에 놓이기에 조이스의 독자는 이미 훈련받은 대로 그런 곳곳에 작가의 의도를 읽고 인물 뒤에 작용하는 작가의 위상을 상정한다. 이 편지에서 ‘단어’와 ‘세계’의 관계를 직접 문제 삼지도 않고, “편지 안 썼으면”(if you do not wrote), “인내심이 폭발할 줄”(my patience are exhausted), “깨질 것 같아요. 오늘.”(a bad headache. today.) 등의 비문이 함께 나오기에 독자는 단순히 마사의 교육 수준을 짐작케 해주는 표현 정도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런데 마사가 편지에서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헨리 플라워가 이름뿐인 상대인 점과, 그렇게 이들은 “명목상 연인 사이”라는 점 등에 적용하면, 말과 세상의 간극이 이미 이들 관계의 바탕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마사의 편지 서두를 읽기 전에 이미 독자는 우편물 받을 때 블룸의 반응을 통해 먼저 보낸 편지가 있고 이들의 서신 교환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마사와 헨리 플라워—블룸—조이스로 이어지는 연계 관계를 편지 읽은 직후의 블룸의 반응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관전 포인트는 우선 실제 꽃의 이동 궤적과 숨기고 싶은 편지의 위치일 것이다.

그는 차분하게 꽃을 침봉에서 떼어내 냄새랄 것도 없는 냄새를 맡아본 다음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꽃말. 여자들은 그걸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서 좋아한다. 아니면 남자를 쓰러뜨릴 독성 꽃다발을 보내기. 그러고 나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며 다시 편지를 읽는 중에 그는 드문드문한 단어씩 중얼거렸다. 귀여운 남자꽃 선생님한테 툴립 하나있어요 말 안 들으면 자기 선인장을 흔내줄 테예요 부디 나를 물망초 잊지 말고 얼마나 제비꽃 보고 싶은지 사랑하는 장미에게 우리가 곧 아네모네 만날 때 모두 못된 가지 부인 마사의 향수. 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신문지에서 끄집어내 옆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U 5.260-74)

냄새가 사라진 꽃은 편지 봉투에서 편에 꽃혀 있다가 블룸의 조끼 윗 주머니로 이동된다. 그리고 블룸은 신문에 넣어 접은 채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재독한 후 바지 주머니에 도로 넣는다.

위 인용 부분에 나온 대목을 두고 꽃말 넣어 읽기의 다양한 방법을 적

용할 수 있겠다. 우선 인물의 관점에서 블룸에게 있는 되새김질 같은 사고 방식의 반영으로 접근해 본다. 블룸은 일종의 연결부, 즉 정리 역할을 갖는 회상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앞서 머코이를 만난 후 시간 경과된 후 혹은 장소 이동 중 다시 기억하는 습관적 의식 흐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구성원 사이에 통용되던 체계에 의거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꽃말 논의의 중심에서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소위 빅토리아 시대 꽃말 사전과 유행했던 꽃 선물로 뒷받침되는 당시 사회에 통용되던 꽃 언어의 인기몰이(cult)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Hung, Fin, Eastman). 예를 들어, 아네모네(anemone)를 통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꽃말 사전을 몰라도 꽃 이름을 괄호 안에 넣으면 직전에 읽은 마사의 편지 내용이 재구성된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더구나 이 꽃말 넣어 읽기 부분은 그에 해당되는 창작 노트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이스의 가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Eastman 381). 『율리시스』 5장의 출판 과정에서 작가 조이스의 원고 수정이 있었던 대목이라고 하니 공들인 흔적이 확실하긴 하다.

흥미롭게도 위의 인용 대목에서 꽃말 이전의 인용 부분이 블룸의 생각과 행위가 겹치면서 꽃말 읽기 자체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아무도 들을 수 없어서 좋아”하는 독자라면 묵독을 해도 꽃말의 의미가 살아나고, 다음과 같이 “꽃다발”을 빼고 읽으면 “남자를 쓰러뜨릴 독성”도 뽑어 나온다.

귀여운 (남자꽃) 선생님한테 (튤립) 화나있어요 말 안 들으면 자기 (선인장)을 혼내줄 테예요 부디 나를 (물망초) 잊지 말고 얼마나 (제비꽃) 보고 싶은지 사랑하는 (장미)에게 우리가 곧 (아네모네) 만날 때 (U 5.264-6 필자 괄호)

그리고 소리 내서 읽으면 튤립(tulip)이 투-립(two lip)으로 들리는 식으로 육감적인 상상을 강력하게 받쳐준다. 그 경우 선인장(cactus)처럼 찌르겠다가 아니라 선인장을 혼내주겠다는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드러난다. 여기에 독자의 깨달음 하나를 더 얹어 보기로 한다. 즉, 이 글의 방법론으로 꽃말 읽기 방식에 암시된 조이스식 괄호 넣기를 적용해 보면 좋겠다. 조이스의 차용방식은 겹 서사를 일궈내는 만큼, 헨리 플라워—블룸—조이스의 위계에 꽃을 매개변수로 관계를 상정한다면, 이름 없는 꽃인 양 꽃을 던진 후 꽃말의 의미를 확장시킨 작가의 언어 사용에 닿게 된다. 그렇다면, 마사의 꽃 편지 해석과 반대 방향으로, 식물 이미지로 블룸의 신체를 감싸고 나서 한 송이 꽃으로 이 장을 마무리 짓는 작가의 대칭적 배치법을 기대하면서, 『율리시스』 5장의 마무리 장면을 꽃의 관계 속에 짚어볼 만하다.

IV

이제 조이스 방식을 적용해서 작품 『율리시스』를 관통하는 주제 비중을 싣고 『율리시스』 5장의 꽃의 모티브를 화려하게 형용하면서 역시 마사의 꽃처럼 한 송이 꽃으로 마무리하는 블룸의 꽃을 마주 보게 할 단계를 맞이한다. 꽃 이름 없는 꽃이 동봉된 편지에서 꽃말로 읽어낸 것처럼 편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가져다가 재조합해서 회상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양상에서 배워 온 방법을 사용해 보려는 것이다. 꽃말이 바로 말과 꽃의 대응 관계를 받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답을 구하는 방법이 주어질 셈이다. 숨어 쓰는 블룸의 가명 헨리의 성을 감안하면, 답장은 플라워의 의식 속에서 재해석된 꽃의 말이 몸의 꽃으로 변환되는 양상에서 찾을 수 있기도 하다. “수천의 어머니”(mother of thousands)의 별칭과 더불어 실제 학명 “삭시프라가 스톨로니페라”(Saxifraga stolonifera)을 지닌 꽃의 외양과 속성(Gifford and Seidman 100)을 참고하면, 다음 인용 부분에 나오듯이 실제 줄기가 꽃을 떠올리는 비슷한 모습의 꽃도 있다는 점에서 비유적인 해석에만 머물지 않는다. 게다가 꽃의 개체와 꽃의 말이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목욕을 즐기자. 깨끗한 욕조에, 차가운 에나멜에, 잔잔하고 다사로운 흐름. 이것이 내 몸이다.

그는 발가벗은 채, 자궁처럼 따스한 물속에서, 향기롭게 녹아드는 비누칠을 하고, 부드러운 씻은 뒤, 욕조 속에 쪽 뺨고 누운 자신의 창백한 몸을 미리 그려보았다. 찰랑찰랑 잔물결을 일으키며 레몬 같은 노란색을 띤 채 살짝 떠서 지탱되는 자신의 몸통과 팔다리가 보였고, 살의 꽃봉오리인 배꼽이 보였으며, 엉클어져 떠 있는 까맣고 곱슬곱슬한 덩불과, 수천 후손의 축 늘어진 아버지 주위에 떠 있는 흐름의 털과, 맥없이 떠 있는 꽃이 보였다. (U 5.565-72)

『율리시스』 5장의 구체적으로 이름 밝혀진 꽃의 부분을 한 무더기처럼 보고 괄호 안에 넣어보면 어떨까. 결과는 마사의 편지와 함께 우편물로 받았던 한 송이 꽃과 블룸의 목욕탕 장면에서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며 한 송이 꽃으로 표현한 대목이 연결되는 효과에 이른다. 게다가 블룸의 자위 장면은 상상 혹은 실천이든 『율리시스』 5장의 마지막을 드리우는 비중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꽃 편지 받고 물에 떠온 몸 꽃 정도가 어떨는지. 꽃을 윗주머니에 구겨 넣고 편지를 옆 주머니에 찢러 넣었는데 나중에 봉투를 찢어서 공기 중에 흩뿌리고 꽃을 남겼다고 보면, 가슴팍에 남긴 흔적과 벗은 신체의 일부를 꽃으로 피워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사의 편지에 남자꽃(manflower)이 있었으니 인간의 원형인 아담(Adam)으로 혹은 가톨릭 미사에서 성체를 영할 때 사용하는 의식의 언어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몸’의 예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사와 마리아는 여기에서도 두 창녀의 이름과 겹쳐지며, 성경의 문맥에 넣어 『율리시스』 5장의 마사와 몰리와 연결 짓게 되므로 블룸은 거리의 예수에 비유된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이다. 조이스 방식의 단어 사용의 특성상 두 개의 ‘꽃’의 마주 보기 정도로는 연결 가능하다고 본다. 식물 개체 아니라 인간 신체에 대해 식물의 이미지를 끌어서 배꼽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를 형용해 낸 데에도 물위에 한 송이 꽃으로 피워 내려는 블룸의 욕망, 이것을 살려내는 작가의 붓놀림을 짐작해 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두 개의 기표어(signifying

words)인 “하나의 꽃”을 통해서 마사와 블룸에 꽃으로 개입하는 조이스를 의식하게 된다. 이름 없는 꽃인 양 꽃을 던진 후 꽃말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식물 이미지로 신체를 감싸고 나서 한 송이 꽃으로 『율리시스』 5장을 마무리 짓는 작가의 대칭적 배치법이 발견된다.

따로 나온 마사의 꽃과 블룸의 꽃을 같이 두기를 시도한다. 마사의 꽃 편지와 블룸 몸의 꽃이 각각 두 번 나왔다고 따로 두지 말고 같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해 본다. 꽃의 사양 면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가까이 두고 멀리서 찾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그 과정에 흠어지고 합쳐지면서 여러 번 제목을 고쳐 쓴 결과, 조이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 나온 두 꽃을 독자로서 마주해서 서로 바라보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독자의 눈길과 작가의 손길이 만난 셈이다.

『율리시스』 5장뿐 아니라 『율리시스』 각 장에서 끝이라서 의미심장함을 예견했듯이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서 두 꽃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노란색의 꽃이라는 공통점에 사라진 냄새를 보완하고 레몬 향기를 보태어 핀으로 고정되었던 꽃에서 핀을 빼 버리고 남은 시든 꽃과, 목욕물에 잠겼다가 수면 위로 띄워 올린 몸의 변화로 부푼 꽃을 마주 보게 하는 것이다. 두 개의 꽃이 비교 대조의 대상이 되면서 『율리시스』 5장의 서사를 진행하는 두 기둥으로서 위치를 잡고, 그 추상적인 제시 방법이 보편성을 띠게 함이 적어도 꽤 분명해진다. 어쩌면 길버트의 『율리시스』 장별 도표에 비어 있는 색깔 란에 ‘노랑’(yellow)을 채워 넣을 여지도 있다. 길버트—고먼(Gorman) 도표상의 오렌지색 또는 갈색보다 더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고 생각된다. 실제 합치지 못하는 외로운 연인 사이에, 그렇지만 텍스트 상편지의 응답으로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려는 것이 이 글의 욕망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앞서 예견되었던 낙하와 부력(falling/floating)의 불일치한 개념을 두고 법칙까지 기억을 더듬었던 블룸의 의식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 『율리시스』 5장은 앞의 장보다 신체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로터스 먹는 종족」 장으로서 정신을 놓게(mindless) 만드나니 그런 의미에서도 육체가 비중을 갖는 장이 된다.

V

조이스는 「로터스 먹는 종족」장에서 비리그 가게를 잇는 블룸의 실명과 그에게 가명 플라워를 준 작가로서 플라워—블룸—조이스의 위계를 설정한다. 『율리시스』 5장에서 블룸이 조우하는 두 인물이 사건을 구성하는데, 각각 머코이와 밴텀 라이언스를 만나게 되는 일이다. 서사적으로 보면, 꽃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즉 마사의 편지 찾아 읽기와 블룸의 목욕 행위/상상 장면의 전후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방문 시점에서는 거의 자아 반영에 해당될 성적이고 종교적인 중복성이 조이스 식으로 패러디되어 블룸에게 나타난다. 특히 자위행위와 상상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조이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장에서 꿈결같은 분위기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스탠퍼드(Stanford)의 언급대로 호머의 『오디세이』속 로터스 먹는 종족의 섬(Lotusland)는 더블린의 “터키식 목욕탕”(a turkish bath) 현대 판 무대에 적용된다(212). 인물들의 작은 실수도 기법적 연계성을 보이는 『율리시스』 5장에서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을 꽃의 서사를 통해서 남녀 관계, 이름과 실제, 서사 구조를 아우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같은 장에 공들여 사용된 조이스의 꽃말 사용 방식을 적용하면, 두 개의 꽃이 대표하는 마사와 블룸의 욕망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고, 장 전체의 주요지점에 마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율리시스』 5장에 나온 두 꽃의 연결점 찾기는 작가의 언어 사용 방식을 통해서 의미가 구축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꽃들의 무리 가운데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으로 부각되는 비중을 지닌 채, 꽃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생화 한 송이와 남성성의 성기를 비유하는 꽃송이에 마주보기의 균형감을 부여하는 것 같다. 꽃 이름을 안 밝힌 추상성으로 보편화되어 등장시키는 단어 두 ‘꽃’이 놓인 위치와 배경과의 대조적 효과 논의를 일단락 짓는다. 『율리시스』 5장을 읽으면서 필자의 머릿속을 꿈에도 날아다녔던, 꽃의 기표와 기의를 아울러 개체로 등장하는 시간적 연결을 기준으로 두 개의 꽃송이 사이의 리

들을 이어가려고 한다. 편에 꽃힌 채 우체국 사서함으로 날아와서 헨리 플라워라는 명함으로 주인공이 교회 예식을 전후해서 위치를 확인할 정도로 확실히 기억되는 입증 코드를 통해 수신자의 손에 전달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꽃/식물처럼 인간의 신체 일부가 한 송이 꽃처럼 목욕탕 물 위로 떠오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전자와 후자의 색깔이 동일하게 노란 빛을 띠고, 후각적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 냄새가 가신 봉투 속 꽃잎에 비해서 물 위의 피부는 레몬향 비누의 향기를 머금고 있다. 바로 이 두 꽃송이는 그 사양으로 보아도 비교 보완의 관계로 조율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두 꽃 관계는 소설의 플롯이면서 시간적 연결, 공간적 배경에 깊숙이 관여되어 마침내 조이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을 마무리 짓는다.

꽃을 매개로 인물 관계도 논의를 꽃 피워보려는 관계 짓기를 과제 삼아 마사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언어와 세계의 혼선이 이 글의 목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각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불륨의 반추하는 사고방식에 없어서 전개되는 조이스의 의미 확산 기법처럼, 실수를 통해서 의미를 일구는 조이스의 의도적 구성력처럼, 그리고 외부의 요소를 들여올 때 필요에 맞게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이스의 차용방식처럼 처음 꽃 한 송이부터 나중 한 송이 꽃 되기 - 꽃 편지 받고 몸에 꽃 피우는 범상치 않은 관계가 가능해진다. 꽃은 두 송이가 함께 아니라, 한 송이씩 두 번 나오면서, 상호 호응도가 강력하지 않은 말로만 하는 연인 사이에 ‘꽃’의 다리를 놓는다. 그렇다고 두 꽃을 두고 묶어서 소통을 말하기엔, 외롭게 각자의 상상 속에 머무르는 두 사람의 개별적인 세계의 경계를 놓치게 될 테니 말이다. 꽃의 메시지는 이처럼 『율리시스』 5장에서 두 개의 꽃송이 사이 의미 관계를 복원해 보려는 시도를 품고 주제와 구성면의 주요 지점에 실체로든 비유로든 불륨의 의식과 행선을 따라 등장하면서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의 조이스식 서사를 일군다.

(안양대)

Works Cited

-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이종일 역, 문학동네, 2022. (출판 예정)
호머. 『오뒷세이아』. 유영 역, 범우사, 1991.
- Eastman, Jacqueline F. “The Language of Flowers: A New Source for ‘Lotus Eaters’.” *James Joyce Quarterly*, vol. 26, no. 3, 1989, pp. 379-96.
- Ellmann, Richard. *Ulysses on the Liffey*. Oxford, 1972.
- Finn, Anna M. “A Bloom without a Flower, or How to Read ‘Lotus Eaters’.” *James Joyce Quarterly*, vol. 52, nos. 3/4, 2015, pp. 623-35.
- Gifford, Don and Seidman, R. J.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U of California P, 1989.
- Gilbert. Stuart. *James Joyce’s Ulysses: A Study*. Vintage, 1955.
- Goda, Michiyo. “‘Take the Starch out of Her’: ‘Secret’ / ‘Soil’ of the Lotus-Eaters Episode in *Ulysses*.” *Journal of Irish Studies*, vol. 21, 2006, pp. 107-17.
- Homer. *The Odyssey*. Translated by Albert Cook, Norton, 1974.
- Hung, Hsin-yu. “‘They like It Because No-One Can Hear’: A Derridean Reading of Joyce’s Floral Language in ‘Lotus Eaters’.” *James Joyce Quarterly*, vol. 45, no. 2, 2008, pp. 348-56.
- Joyce, James. *Ulysses*. Vintage, 1993.
- Reyes-Reyes, Benjamin. “How Leopold Bloom’s Psychosomatic Trauma from His Son’s Death Affects His Marriage in James Joyce’s *Ulysses*.” *Write Me Your Essays*, edited by Dylan Emerick-Brown, 2020, pp. 29-32.
- Semon, A. “The Language of Flowers in *Ulysses*.” *Write Me Your Essays*, pp. 39-42.
- Stanford, W. B. *The Ulysses Theme*. Spring P, 1992.

Abstract

Two Flowers in Joyce's "Lotus Eaters"

Seunghee Sone

The twice-mentioned "a flower," in chapter five of *Ulysses* can be read as Martha's and Bloom's desire which is reflected in the form of two flowers. The reader desires to restore Martha and Bloom, who rarely meet in person, to a face-to-face relationship via flowers. The fifth chapter of James Joyce's *Ulysses*, "Lotus-Eaters," presents a flower as really enclosed in Martha's love letter and a flower as a figurative representation for Bloom's bath masturbation. These two flowers actually draw the readers' attention against the chapter filled with actual names of flowers. They also represent the main posts, resonating with why Bloom leaves home and how Joyce finishes Bloom's lonely adventure, in "Lotus-Eaters." This paper discusses a Homeric parallel using *Odyssey* as a resource text. Bloom's verbal response to Martha's letter is read closely with the language of flowers Joyce actually elaborates. Bloom floats his man-flower as a bodily manifestation compensating with lemon flavor for the odorless flat petals at the ending scene of the episode. A floral bridge connects Martha's letter to Bloom's bath in the end. Joyce employs the language of flowers as a portal of discovery, and as his narrative strata relaying Martha's letter to Bloom as Henry Flower, reaching the author himself. Finally, the two yellow flowers are related facing each other reflecting and compensating desires: Martha's petals pinned in the letter to Bloom's skin floating on the water.

■ Key words : two flowers, “Lotus-Eaters” in *Ulysses*, James Joyce, Martha, Bloom, language of flowers
(두 꽃, 『율리시스』 5장 「로터스 먹는 종족」, 제임스 조이스, 마사, 블룸, 꽃말)

논문접수: 2021년 11월 27일

논문심사: 2021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21년 12월 17일